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하자

94년 2학기 주간성경공부 개강

9월 3일 개강예배, 7개 과정

94년도 2학기 주간성경공부 각반이 9월 3일 일제히 개강한다. 2학기는 1학기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 되도록 교과편성을 하였다. 각 과정은 ① 주간성경공부, ② 직분자 교육, ③ 양육교육, ④ 교사양성부, ⑤ 찬양대 양성부, ⑥ 교사연장교육, ⑦ 선교를 위한 외국어 공부 등이다.

각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성경공부
 - 1) 성경개론 : 구약개론
 - 2) 성경각론 : 창세기, 다니엘,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 3) 주제별 성경공부 : 크로스웨이

- 1권,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인의 생활
2. 직분자 교육
 - 1) 구역장교육 : 권찰, 서리집사 포함,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 2) 권사교육
 - 3) 안수집사 교육
3. 양육훈련 : 전반기에 기초반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 새로운 인원은 95년도에 가서 모집한다.
 - 초급반 :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교육
 - 4. 교사양성부
 - 신학적 기초교육 7주, 교육적 기초교육 5주, 현장교육 및 훈련 8주, 과제물
 - 5. 찬양대 양성부

- 찬양대원의 영적준비 4주, 합창의 실제와 시창 9주
- 6. 교사 연장교육
 - 신학적 이해강화 4주, 교육적 이해 강화 4주, 현장교육 강화 4주
- 7. 외국어교육 : 선교연구원에서 외국어 성경 및 언어공부를 실시토록 한다.
 - 1) 영어 성경 및 선교언어 공부
 - 2) 일어 선교언어 공부
 - 3) 중국어 선교언어 공부
 - 4) 러시아어 선교언어 공부

모든 과정은 12월 4일에 종강한다. 현재 교회학교 교사 중 교사양성부를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꼭 등록해야 하며 찬양대원도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직분자 교육중 구역장 교육도 예수 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담당한다.

우리 교회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각 연령층에 맞춘 교회학교가 그렇고 주간성경공부를 통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하자. 원하는 사람은 9월 3일까지 교육국에 신청하면 된다.

8월 29, 30일 갈릴리홀에서 새가족양육위원 수련회

새가족위원회 산하 양육위원 수련회가 내일 29일(월)~30일(화) 이틀 동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는 주제 아래 모이게 될 금번 수련회는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과 교구양육위원은 물론 23개 교구의 교구장과 지도교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금번 수련회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양육위원의 사명)와 장석교회 새신자부 지도인 민경운 목사(새가족 양육의 실제)이며 강의 후에는 기도회와 분과별(행정부/양육부) 모임도 가질 예정이다.

전반기 동안 새가족들을 맡아 돌보며 양육하던 양육위원들과 금번에 새롭게 교구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받은 교구양육위원들은 금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하고 '94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대비하여 새가족 양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요한남전도회 연합회 9월 10일, 친선체육대회

요한남전도회 연합회는 오는 9월 10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교회에서 제 5회 친선체육대회를 갖는다.

매년 전 지회 전도회가 연합하여 모여 함께 친교를 나누며 새신자가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교구의 회원들을 사귀기도 하는 유익한 모임으로 금년에는 교회에서 모여 친교하며 체육대회를 가지게 됐다.

빈민층과 북한동포, 해외빈민, 아동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적극참여

91. 3. 1 발족, 북한에 10,000가마 등 총 40여억원

오늘 사랑의 쌀 나누기 저금통 배부

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이미 지난 1990년 2월 17일 서울남산교회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동년 3월 1일부터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독교 사랑운동이다. 당시 10여년 동안 지속된 풍작으로 쌀이 남아돌게 되자 정부에서도 남아도는 쌀로 막걸리, 소주를 만들도록 권장했고 심지어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은 쥐의 먹이가 되고 있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일에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래서 발족된 것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사실 쌀이 남아 돈다고 하지만 전국의 어려운 이웃, 영세시설 보호자 180만과 소년소녀 가장이 7천여명은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었고 국외로 눈을 돌리면 기아선상을

해메는 해외빈민, 아동이 1천 4백만명(이들중 매일 4만명이 굶어서 죽고 있음-UNICEF 통계), 또한 북한의 수많은 동족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금을 기탁했는데 금번에는 전교인이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운동본부에서는 각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랑의 쌀 저금통을 제작하여 각 개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저금통에 꾸준히 저금하여 저금통이 차면 저금통째 기증을 하면 된다.

우리가 베푸는 조그마한 사랑이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없이 모두 '1인 1저금통 갖기' 운동을 펴서 이 사랑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저금통을 배포한다(꼭 필요한 수량만 가져가자!).



여름 산상부흥성회 지난 8월 22-25일 까지 중현기도원에서는 여름 산상부흥성회로 모여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8월 22일(월) 저녁 8시부터 25일(목) 저녁까지 모인 산상부흥성회는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지며 영적부흥과 각성, 하나님앞에서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집회시간 외에는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각 개인별로 산상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사데교회나 라오디게아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 다. 그리고 에베소교회와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 다.

1. 일곱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번째 해석은 1세기 당시의 일곱 교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일곱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으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일곱 세대를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에베소교회는 초대교회(100년까지),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시대(100년에서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는 세속시대(313-500년),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시대(500-1400년), 사데 교회는 개혁이 실패한 시대(1400-1500년),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시대(1500-1900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오늘날의 말세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일곱 교회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아 할 것은 에베소교회와 같은 교회는 초대교회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런 유형의 교회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해석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교회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난계 아니라 오늘날도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사데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바룩 작은 교회이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은 향내를 내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2. 에베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라는 뜻은 '완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름 그대로 그저 적당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3대 교회 중의 하나인 에베소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서 놀랍게도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후에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곳에서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도시인데 고대의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주의의 중심이기도 하고, 부적을 파는 곳이기도 하고, 산대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매년 아데미 여신을 찬미하고 기념하는 올림피경기를 에베소 지역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중에 경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유명한 것은 원형극장입니다. 2만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이 있었으며 이것은 항구로 직접 연결되는 아카디아안이라는 길로 연결되어 있 게도 합니다. 에베소교회는 사랑없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을 뜻합니다. 사실 오늘날 정통을 내세우는 보수교단을 보면 교리적으로는 에베소교회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야단을 분별하고 잘 막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적어졌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현대의 많은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3.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에베소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교회가 받은 칭찬을 보면 첫째로 "내가 네 행위와"라고 했는데 이들의 행위는 칭찬할만 합니다. 둘째로 "수고와"라고 했는데 에베소교회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야단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셋째는 "네 엔

내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섯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거짓 사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콜라당입니다. 니콜라당은 영지주의적 이단으로서 율법의 무용론, 영혼의 무죄설, 무도덕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라

충현강단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2:1-7)



신 성 중

<목사·당회장>

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일곱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게으르면 안됩니다. 부지런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도, 행위도, 열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로는 스토계(혈육적인, 가족적인 사랑), 에로스(남녀간의 사랑), 필레오(친구간의 사랑), 아가페(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둘째는 형제들에게 가지는 사랑입니다.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명에 대한 사랑, 즉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심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교회는 그런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 에베소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교회가 사는 비결

예수님은 에베소교회에 두 가지의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가겠다, 방문하겠다

는 것입니다. 둘째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 에베소교회는 아시아의 관문이요, 시장이며, 등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교회가 있었던 장소에 가보면 폐허가 되었고 카이스터라는 강의 파도에 밀려 들어온 침적토로 인해서 바다에서 10Km나 떨어진 늪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갈대만이 무성하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여기저기 돌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에베소교회처럼 됩니다. 촛대를 옮기십시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몇몇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사는 비결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건강증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 목적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넷째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적과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5.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이란 페르시아어로 파라다이스, 즉 선과 미와 쾌락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곳은 삼층천, 에덴동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교회는 여러 가지가 다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점은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성도들간에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그 뜨거웠던 열정, 입을 열면 찬송이요 기도이며, 말씀이 그리워서 성경을 몇 장씩 읽어도 또 읽고 싶어 났을 때도 부두막 위에 성경을 얹어놓고 읽으며 말씀을 갈급해 하던 그 뜨거운 신앙생활의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면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책임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형제들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굵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태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직장선교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전 계 식

(집사, 장년1부 교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여름에 매년 산으로 피서를 떠났는데 올해에는 뜨거운 열대의 나라 태국 선교훈련을 가기로 마음한 구석에 와 닿았을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어도 모르고 기후, 풍토와 모든 환경이 다르며 94%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에서, 그리고 특히 어떤 특기도 없는 필자가 선교팀에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하는 상념이 뇌리를 억누르기도 하였지만, 현장훈련과 체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보다 강건하여지고 선교를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더불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선교사의 사역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무엇보다도 직접 선교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10일간의 짧은 사역기간 중에서도 매슬에 있는 미얀마 난민인 카렌족에 대한 사

역이 특히 인상깊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며 이곳 피난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카렌족은 태국 북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독립을 피하다가 쫓겨나온 난민들로 유엔에서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족으로서 우리나라 625전쟁 직후를 연상케 하는 처참한 생활상이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종족이었지만 의료, 미용, 어린이사역, 심방 등을 통하여 너무나 진지하고 순수한 태도와 예의바름, 그리고 열정적인 참여와 호응을 볼 때 아직도 이런 사역을 통하여 더욱 복음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태국에 인접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선교사들의 입국을 전혀 허가하지 않아 복음의 황무지로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매콩강에서 라오스를 바라보며 “저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대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



▲ 노방전도를 나가기 전 준비하는 대원들

졌다. 우리나라 남한만한 크기인 우돈타니 지역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농어촌 전도 보다는 훨씬 어려웠다.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 그것도 미신, 부적 등 우상으로 꼭 차있는 지역에 오지라는 점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꺼려하여 선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20명정도의 매우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지만 그나마도 교역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때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국가들 중에 선교활동이 자유로운 태국에 선교 비전을 갖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태국민에 대한 복

음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헌신적인 기도와 현지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향후 태국에 인접한 주변국가들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기원해 본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와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선교사업에 지원하며 선교위원회에서도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주도면밀한 계획과 기획하에 장·단기 선교사역을 시행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한다.

한 사람도 헛되이 대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경 희

(미용팀)

1994년 8월 2일 오전 12시 45분 김포공항에서 우리팀은 대한항공 KE634기편으로 태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태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베트남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기착지이므로 기내에는 여러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평평을 내려 달려가는 동안 나는 이 여행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들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두 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쪽으로 비행한 끝에 방콕 공항에 도착하니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며 후덥지근한 바람이 코와 입을 가로 막았다. 우리나라에서 더운 날씨에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무엇인가 다른 아주 찻찻함이 나를 억누르는 듯한 묘한 기분이었다. 공항에는 미리 연락받은 강대홍 선교사 부부와 김문수 선교사 권오혁 선교사께서 우리를 환영해주었고 곧 이어 우리팀은 버스를 타고 10시간 이상의 멀고 긴 메솔의 카렌 난민촌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메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남민촌에 도착하니 현지 사정으로 사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팀은 그 자리에서 통성으

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

8월 3, 4일 남민촌에서 사역 시작 한 사람도 헛되이 대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의 연속 같으나 너무나 간절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 (불평없는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실상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헤어질 때는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눈물 흘리지 않는 대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난민촌을 떠났다. 또다시 멀고 긴 버스 여행 - (이번 여행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던 말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주심을 감사한다.)

8월 6일 우돈타니의 바코교회 사역 시작. 영적 혼탁함을 느끼며 그날의 사역은 심히 감당하기 어려웠다. 영·육간의 시달림 속에 나는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날밤 조영미 선교사와의 긴 대화 속에서 나의 기도 부족과 또한 내마음에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번 충현 단기선교를 통하여 나의 느낌은 다음과 같다. 1) 너무 짧은 훈련과 2) 단기선교 후보의 문제점 3) 후보들간의 팀워크 부족 등이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 없는 보답이었으며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태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충현 태국 주재 선교사님들, 특별히 끝까지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김문수 선교사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 카렌족 지역에서의 미용사역

토막소식

- ◆ 탁아부의 교사월례회 및 기도회가 28일(오늘) 교구 공부 후 탁아부실에서 있다.
- ◆ 유치부는 성경퀴즈대회에 이어서 9월 25일(주일)에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곡은 예수께로 가면 외 9곡이다.
- ◆ 초등1부는 예수사랑 가을잔치와 잃은 양 찾기를 준비하며 9월 1일-9월 30일까지 추계대심방을 실시한다.
- ◆ 초등6부는 오늘 제3차 안드레 초청잔치를 연다.
- ◆ 중등2부는 8월 28일(오늘)부터 한글 시간에 각 부서에서 특별찬양을 드린다.
- ◆ 대학부에서는 9월 찬양과 기도의 밤을 9월 1일 울림소리 주관으로 나사렛홀에서 연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 ◆ 청년1부는 오는 9월 11일(주일) 오후 1시, 교육관 507호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청년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성경암송대회를 9월 30일(금)에 연다. 암송범위는 야고보서 3-5장까지이다.
- ◆ 에바다부에서는 수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 주일반과 평일반 두 과정이 있다.
- 주일반은 9월 11일(주일)-11월 27일까지이며 과정은 초급1반, 초급2반, 중급1반, 중급2반, 고급반으로 시간은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다.
- 평일반은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며 과정은 초급·중급·고급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이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늘 건강을 주시사 말씀사역에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 신성중 목사 : 28일(주일) 목양교회 창립10주년 기념예배 설교, 30일(화)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 주재 농어촌돕기운동 발기인 대회 주재
2. 금요일집회에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3. 길림성신학교의 설립과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태신자를 품으며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하시사 하늘의 상급이 풍성케 하옵소서.
5.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사역인 팀선교훈련과 맞사이부족의 선교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건강도 주옵소서.

할 렐루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는 나에게도 크신 영광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중히 여긴 것들을 주께서 천히 여기시고 내가 천히 여기던 것들을 주께서 그렇게도 귀히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비밀을 풀어주실 때 주를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질풍문 자연에 부딪혀오는 싱그러움과 눈을 열어 보여주신 그렇게도 귀히 보이는 성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주의 향기

'94찬양대 연합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먹여만 주신다면 평생 주를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허 광 만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신 것이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진리를 밝히 보여 주셔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여 주신 모습이 주께서 발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요 선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찬송케 하려고 나를 지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별레만도 못한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나같은 천한 자도 인도하시며 나를 인하여 주께서

런 입김을 쏘이니 기쁨의 샘이 터져 끝없이 흘러 나옵니다. 지체의식을 갖게 되니 하나님의 소중함이 가식의 허물을 벗고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합’의 장엄함이 유감없이 힘을 드러냅니다. 큰 물소리와도 같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찬양대를 앞세우시고 세계 끝까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의 전쟁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 찬양대연합여름수련회 - 김철문 교수의 특강

전쟁터에는 보이지 않던 모세의 기도처럼 숨어서 몰래 기도하시며 눈물로 주께 아뢰시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산 제사, 찬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11년 동안 연탄배달의 고학생, 활처럼 휘 다리와 등을 가지고 대신대학 음악 교수이자 찬양대 지휘자가 되기까지 작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 서서히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먹여만 주신다면 평생 주를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강철문 교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오락과 체육대회, 장기자랑을 통하여 거기 계시면서 기뻐 노래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되게 하시고자, 기쁨을 주시고자, 찬양을 받으시고자 무관하게 여기던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한의 영광을 감춰 놓으시고 천하고 작은 나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드리운 햇살
가득찬 보석
작은 꽃망울
소자가 받은 선물
영그는 보석
주님의 선물
소자가 보았네
그건 새벽별이었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선행으

로 실패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찬미의 제사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독일의 통일도 찬양운동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성도의 생활이지만 내세에까지 영원한 성도의 생활이요, 장차 남북의 통일과 세계 선교의 성공은 찬양의 확산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은 주의 받으실 찬양, 마귀가 도망치는 찬양, 성도나 불신자에게 믿음을 심어 성장시키는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부흥회 시간에 잠잠히 새기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와 동행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장기자랑, 아침산책, 체육대회, 특송과 찬양, 아침 경건의 시간, 경건한 양식의 풍성함, 간식까지도 그렇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복돋으신 여러 행사 중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죄가 씻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육신은 피곤하나 이러한 은혜의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나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방학 내내 돌봐야 하는 100명 가량의 양떼를 핑계로 참석을 안했다면, 저는 심신이 피곤하고 기진할 뻔 했는데, 이제 새 힘을 얻어 하산 할 때, 나는 내 몸을 찬미의 제사로 주께 바쳐야겠다는 다짐과 나 또한 주를 위하여 숨은 가운데 산제사를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 찬양대연합여름수련회에서 한 장면 - 각 찬양대의 장기자랑